

# 고창 어촌 정주여건 확 달라진다

### 해양수산부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사업비 100억원 확보 돌봄·주거·교육 생활서비스 개선...어항시설 정비·귀어 정착 지원

고창군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2024년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대표 국정과제로 어촌의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간 어촌지역 300개소에 총 3조원을 투자해 어촌지역을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꼭 필요한 보건·복지, 문화, 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선정된 5개소(450억원) 모두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어촌의 지속 가능한 모델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어항 및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해 공모에 참여한 11개 시도 151개소 중 3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고창 하전권역은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펀지락스태이션(돌봄, 주거, 교육, 사랑방 등) 어촌 생활서비스 개선과 리프 스테이션(패류 껍질 처리기), 마을회관 리모델링, 트랙

터 주차장 및 어항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을 위해 해당 어촌계에서는 가입조건 완화 및 개방으로 귀어·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고창의 하전권역은 국내 바지락 생산량 50%가 생산되는 주산지이며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 풍부한 생태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종합테마파크와 고창갯벌지역센터에 이은 해안권 개발사업의 또 하나의 쾌거"라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어촌생활환경 개선 및 어업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활력 넘치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 농기센터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

### 배양장 증설 年 360t→950t 생산...친환경 농업 선도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의 유용미생물 배양장 설비.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유용미생물 배양장을 증설해 올해부터 공급을 확대한다. 미생물 배양장의 생산량은 기존 연간 360t에서 증설을 통해 단일 미생물과 고온성 미생물(GCM)까지 950t으로 늘었다. 군은 미생물 확대 공급을 통한 연작장애 감소, 토양환경 개선 등을 추진, 농업 생산성이 올해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용미생물은 토양에서 오염물질을 분해해 환경을 정화하며 항생물질 생성으로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고창군 미생물배양장은 약 2000여 농가가 매년 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용미생물인 EM, 광합성균, 고초균 등이 농작물의 생육개선과 토양 환경개선, 농작물 생산 촉진, 축사 악취감소 등에 높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외에도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미생물배양장 부지에 고온성미생물배양장을 신축, 고온성 미생물을 연간 500t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미생물 보급에 나서고 있다"며 "지역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새기술연구팀 미생물배양장으로 문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에 전기안전 인재개발원 개청...年 6000명 교육

### 60개 사업장 직무능력 향상 전기산업 예비 인력 양성 교육



박지현(왼쪽 일곱번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지난 10일 참석자들과 함께 '전기안전인재개발원' 개원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제공>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재개발원이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내 자리잡은 개발원은 토지 3만6266㎡, 건물연면적 1만2051㎡ 규모로 지어졌다. 내부에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글로벌 강의실, 실습실 등 30여개의 교육시설과 145개의 기숙사, 북카페, 쉼터, 체육단련실 등의 부대 시설이 들어섰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공사 본사와 전국 60개 사업장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전기산업 예비인력 양성을 위한 공익교육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간 교육 대상인원은 6000여 명이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 개청식 자리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위치한 연구단지와 전기제대 분석센터 등이 인접해 있다"며 "앞으로 산·학·연이 함께하는 기술연구와 분석, 교육이 하나로 연계된 전기안전 클러스터로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동계 전지훈련 최적지 부상

### 이번달 축구·테니스 등 1250명 규모 팀 유치

남원시가 각종 스포츠 동계 전지훈련지로 급부상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이 기대된다. 남원시는 이달 현재 지역에는 축구, 테니스 등 1250여명 규모의 스포츠 전지훈련팀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1차로 시작된 유소년축구 전지훈련은 12일까지 8일간 실시한다. 이어 15일부터 21일까지는 2·3차 훈련이 진행된다. 또 초등 테니스 동계 전지훈련도 8일부터 시작해 13일까지 예정돼 있다. 남원시 축구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유소년축구 동계 전지훈련에는 전국 총 35개팀 954명의 선수단이 참여한다.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문화체육센터 1·2구장, 남원중학교 운동장,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축구장 등이 훈련지로 사용된다. 초등 테니스 동계 전지훈련 참가자는 300여명(전국 20개팀)이다.

이번 유소년 축구와 초등 테니스 전지훈련에는 많은 학부모 및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만큼 마트, 카페, 요식업소 등의 매출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방문 선수단들이 우수한 시설에서 훈련하고 부상 없이 훈련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이달 선수단의 방문으로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맞은 지역에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정읍 학교 급식 공급업체 모집 장·떡·고춧가루 등 16개 품목

정읍시가 학교 급식용 지역생산 가공식품을 공급 적격업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장류, 두부류, 떡류, 고춧가루 등 16개 품목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9일까지 관련 서류 등을 갖춰 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과 로컬푸드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오는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3년간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가공식품을 납품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월 5일) 기준 정읍에 제조공장을 두고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순항

### 올해 거점도시 구축·인프라 구축 등 프로그램 다채

남원시가 소프트웨어(SW)교육 거점센터 및 협회교육장 구축·운영, SW교육환경 조성과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했던 '전북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4월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 ㈜디랩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SW 미래채움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1년간 SW전문강사 44명을 양성했던 시는 4960명의 초·중학생 SW교육을 시작으로 ▲디지털리더스 클럽 운영(8명) ▲청년SW개발자 양성과정 운영(28명) ▲SW미래채움 창작 페스티벌

운영 ▲SW·AI Challenge 대회 개최 ▲SW미래채움 청소년 토크콘서트 '슬기로운 코딩생활' 개최 등 SW교육환경 조성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시는 올해도 ▲SW미래채움센터 구축을 통해 거점도시 구축 및 SW인프라 확산 ▲지역인재·종합인재 등 2트랙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SW인재양성 프로그램 ▲전북 지역민이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행사 ▲전북 도교육청 및 SW중심대학사업단과 협력해 지역연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인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